

리질리언스 원칙에 기반한 생태관광자원 관리 계획

최윤의* · 전진형**

*고려대학교 오정에코리질리언스 연구원 ·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I. 서론

생태관광은 생태환경과 그 생태환경에서 창출되는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에 의해 존속된다. 생태관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생물서식지를 보전하고 관광객을 위한 탐방 및 교육·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분배해야 한다(Anup *et al.*, 2015; Cater, 1998; Fennell, 2014). 생태관광의 주요 관광 자원은 자연적 관광자원과 인공·인문적 관광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관광 자원은 관광지에 특징적으로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들의 생물서식지이며, 인공·인문적 관광 자원은 숙박, 식당, 교통, 탐방로, 전시관, 탐조대 등 관광 기반시설과 교육 및 해설, 축제 및 행사 등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생태관광지의 생태계서비스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관광 자원과 인공·인문적 관광 자원의 균형 발전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는 생태관광을 활용하여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각종 개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은 생태환경의 보전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비해 도시재생 및 관광시설 구축 등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습지의 경우, 2017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명목 하에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안산시는 대부도 지역에 관광호텔 건설, 마리나 및 수변공원 조성 등 대규모 관광기반시설을 유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체계적인 생태관광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개발계획은 자연적 관광 자원의 훼손뿐만 아니라, 인공·인문적 관광 자원의 불균형한 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부도 생태관광을 개발의 수단이 아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인문적 관광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사회·경제 분야의 수많은 요소들이 복잡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생태관광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생태적 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적응하여 리질리언스를 확보할 수 있는 전환 전략이 반영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바람직한 시스템에 대한 전환 전략은 리질리언스 원칙들에 의해 수립될 수 있다(Biggs *et al.*, 2015; Walker *et al.*, 2004; Walker

and Salt, 2012).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부도 생태관광지의 현명한 인공·인문적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리질리언스 원칙들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태관광시스템을 계획하는 것이다.

II. 리질리언스 원칙

리질리언스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생태시스템이 교란에 대응하는 능력이다(Biggs *et al.*, 2015). 리질리언스는 적용 대상, 교란의 종류, 대응방식 등에 따라 상세하게 제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관광지 내 인공·인문적 자원시스템이 개발행위 및 이해관계자 수요에 현명하게 적응하기 위한 능력으로 한정하였다. 리질리언스 관련 연구 과학자 집단인 Resilience Alliance는 사회생태시스템의 리질리언스를 연구한 문헌들에서 리질리언스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원칙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일반 원칙을 제안했다. 리질리언스 향상 원칙은 다양성 확보, 연결성 관리, 학습 장려, 참여 확대, 다중심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다(Biggs *et al.*, 2015).

다양성은 모든 계획이 동시에 실패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확보되어야 한다. 교란이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반응다양성과 특정 기능을 유사하게 수행하는 요소들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기능중복성이 포함된다. 연결성은 사회생태시스템에 교란이 발생할 경우, 우회로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 필요한 개념이다. 연결성은 네트워크(다양한 규모와 요소간의 정보, 물질, 에너지의 흐름)와 모듈성(교란, 훼손 등 부정적 요소의 전달 방지)의 개념을 포함한다. 학습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 창조, 기존 지식의 지속적 수정, 실험,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정보 습득, 이해관계자 그룹 간 교육을 총칭한다. 참여는 사회생태시스템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니터링, 의사결정, 정책평가 등 전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중심적 거버넌스는 정부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NGO 등이 각자의 시간적·공간적 규모에서 전략적 목표와 역할을 수립하고, 그룹간 교류를 하는 것이다. 사회생태시스템은 고도로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회생태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리질리언스 원칙은 독립적으로 적용되기보

다 상호 의존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리질리언스 향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복잡하고 역동적인 생태관광시스템의 구조 및 행태 분석과 리질리언스 원칙에 의한 바람직한 생태관광시스템으로의 계획은 시스템 사고에 의해 접근될 수 있다(Choi *et al.*, 2017b).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변수들의 작동메커니즘을 파악하여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하는 연구방법론으로(Richmond, 1993), 생태관광시스템의 인과순환구조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시스템 사고의 수행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지 이슈 파악을 통한 주요 변수 선정, 둘째, 변수간 인과관계 확인, 셋째, 인과순환지도 작성 및 시스템 구조 분석, 넷째, 전략지점의 선정과 리질리언스 원칙에 기반한 전환 전략 수립, 다섯째, 기존 시스템에 전환 전략 도입 및 신규 시스템 구조 분석, 시스템사고의 다섯 단계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앞선 단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Choi *et al.*, 2017a). 본 연구에서도 유형별 생태관광시스템의 전략지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 단계간 피드백 과정을 거쳤으며, 원고에는 최종으로 확인된 결과를 기술하였다.

IV. 연구결과

대부도는 습지보호지역, 칠새도래지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적 관여가 높은 만큼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생태관광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기반시설 도입이 어려움에 따라 직접적인 체험활동이나 레저활동보다는 우수 자연경관 감상 및 탐조 등의 활동, 혹은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해설 활동이 행해진다(Farrell and Marion, 200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양성된 자연환경해설사는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관광지역 등 환경부가 관리하는 생태우수지역에서 양질의 교육 및 해설을 제공한다. 생태관광지 내 교육 및 해설은 관광객에게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이 된다(Choi *et al.*, 2017a). 그러나 대부도 습지보호지역 외 인근에서는 지속적인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관광기반시설이 증설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 경계에 따라 주요 변수를 도출하고, 변수간 인과관계 확인을 통해 인과순환지도를 구축하였다. 대부도의 인공·인문조적 관광자원시스템은 생태자원에 대한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매력도 루프, 관광객 수요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에 의한 양질의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 운

영 루프, 관광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투자 루프, 관광객의 편의에 대한 관광기반시설 수요 루프를 형성한다.

대부도 생태관광은 관주도형 생태관광이다. 관주도형 생태관광은 지자체의 예산과 정부기관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된다. 발전단계로의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주도형 생태관광은 지자체의 즉각적인 예산 배분과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의 이유로(Choi *et al.*, 2017a) 교육 및 해설프로그램과 관광기반시설의 질적·양적 발전이 순조로울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정부기관의 정책 변동 등에 의해 예산이 삭감될 경우, 관광매력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이 악순환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관광시스템을 쇠퇴로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관주도형 생태관광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리질리언스 원칙에 기반한 대부도 인공·인문적 관광자원 시스템의 전환 계획은 다음과 같다. 관광객과 인구증가에 따른 인공·인문적 관광자원에 대한 수요와 개발압력은 도시화 및 관광기반시설의 증가를 야기한다. 생태자원 훼손에 다양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발압력을 감시하기 위한 토지이용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인공·인문적 관광자원 중에서 관광기반시설의 증설 대신 생태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확보하여 관광매력도 향상 요인을 대체해야 한다(Choi *et al.*, 2017a; Choi *et al.*, 2017b). 대부도 생태관광은 여름 갯벌체험 및 겨울철새 탐조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생태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절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생태교육 및 해설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부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소개, 지역문화 연계 생활방식 소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대안적 관광자원의 개발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철새 수 감소 등의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중복성을 제공한다. 한편, 생태적 관광자원과 인공·인문적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이용 편의와 생태관광운영자의 관리 편의를 고려하여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Lee *et al.*, 2017). 인공·인문적 관광자원은 대부도의 생태관광의 핵심자원인 생태자원을 보조하는 역할로써 개발되어야 한다. 생태자원과 인공·인문적 관광자원의 네트워크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시키고, 다각적인 소비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Lee *et al.*, 2017). 그러나 생태적 관광자원과 인공·인문적 관광자원의 과도한 네트워크는 탐방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핵심지역, 완충지역, 이용지역 등과 같이 토지이용 구분에 따라 생태자원 보존과 이용에 대한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 대부도에서 생태관광을 운영하는 지자체(안산시)와 지역주민들의 책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속한 TFT를 결성하고 불법 레크리에이션 제어 역할을 하는 주민감시단의 양성과 관광객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주민 및 운영자 가이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책임의식이 형성된 주민과 관광운영자에 의해 구축되는 관광지 사전정보 제공 플랫폼은 관

광객들의 책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광운영자와 관광객에 의한 관광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부하 및 생태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대부도 생태관광의 거버넌스 체제를 top-down 방식에서 bottom-up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V. 결론

리질리언스 관점은 생태관광지의 사회생태시스템이 사회적·생태적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체제로 적응 및 전환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생태관광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하다. 생태관광의 근본취지와 리질리언스 원칙의 연계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생태관광의 정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생태관광은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광 활동(관광, 운영, 관리, 해설)을 통해 지역사회 수익 분배를 지향한다. 리질리언스 원칙은 생태관광지 내 생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들의 다양성 및 연결성 확보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학습, 다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리질리언스 원칙이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한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생태관광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리질리언스 원칙에 의한 생태관광시스템 계획은 생태환경과 이해관계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바람직한 옵션과 역할을 제안함으로써 생태관광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Anup, K. C., K. Rijal and R. P. Sapkota(2015) Role of ecotourism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Annapurna conservation area, Nepal.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orld Ecology* 22(3): 251-258.
2. Cater, E.(1998) Tourism, ecotourism, and protected areas: The state of nature-based tourism around the world and guidelines for its development. *Geographical Journal* 164: 349-350.
3. Fennell, D. A.(2014) *Ecotourism* (4th ed.). Oxford: Routledge.
4. Biggs, R., M. Schlüter, and M. L. Schoon(2015). *Principles for Building Resilience: Sustaining Ecosystem Services in Social-Ecologic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Walker, B., C. S. Holling, S. Carpenter, and A. Kinzig(2004) Resilience, adaptability and transformability in social - ecological systems. *Ecology and Society* 9(2): 5.
6. Walker, B. and D. Salt(2012) *Resilience Thinking: Sustaining Ecosystems and People in a Changing World*. Washington: Island Press.
7. Choi, Y. E., K. Song, M. Kim, and J. Lee(2017) Transformation planning for resilient wildlife habitats in ecotourism systems. *Sustainability* 9(4): 487.
8. Choi, Y. E., M. Doh, S. Park, and J. Chon(2017) Transformation planning of ecotourism systems to invigorate responsible tourism. *Sustainability* 9(12): 2248.
9. Richmond, B.(1993) Systems thinking: critical thinking skills for the 1990s and beyond. *System Dynamics Review* 9(2): 113-133.
10. Farrell, T. A., and J. L. Marion(2002) The protected area visitor impact management (PAVIM) framework: A simplified process for making management decision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0(1): 31-51.
11. Lee, S., J. Chon, S. H. Kim, S. You, and Y. E. Choi(2017) Development of an industrial network system using rural landscape and the role of stakeholders. *Journal of East Asian Landscape Studies* 11(3): 1-9.